

참중고기

Oily shinner

|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Mori, 1927)



분 포 임진강과 낙동강까지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한다.

형 태 몸은 옆으로 길고 주둥이 끝은 둥글다. 몸 가운데는 옆줄이 완전하며 산란시기의 수컷은 입 주변의 추성과 혼인색이 나타난다. 체색은 등 쪽이 어두운 녹갈색이며 배 쪽은 은백색이다. 몸의 측면에는 검은 띠가 있고 몸의 뒤쪽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산란시기 수컷의 혼인색은 가슴, 배, 뒷지느러미가 검게 변하며, 암컷은 주황색을 띤다.



영산강 수계의 참중고기(좌:수컷, 우:암컷)



수조에서 유명중인 참중고기



1) 환경조성

참중고기의 사육환경은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깔려있고 유속이 적절히 흐르는 것을 선호하며 수초는 유속이 완만하게 흐르는 곳에 서식하는 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바위나 유목을 넣어주면 은신처와 함께 부착조류를 먹기도 한다. 유속은 수중모터 또는 측면여과기를 설치해 발생시켜 준다.



혼인색을 띠기전 참중고기 수컷

참중고기

Oily shinner

|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Mori, 1927)

2) 먹이주기

참중고기의 입 모양은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 부상사료를 먹기도 하지만 바닥에 가라앉는 침강성 사료를 주는 것이 좋다. 식물성분이 혼합된 사료, 냉동장구벌레 또는 새우류를 주기도 하며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지만 않으면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먹는다. 먹이 횟수는 3회/일 정도가 적당하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조금씩 천천히 준다.



먹이를 먹고 있는 참중고기



낙동강 수계의 참중고기



산란관이 나온 암컷

3) 번식방법

참중고기는 납자루아과 어류와 함께 담수산 이매패류에 산란하는 습성을 가진 어류이다. 산란행동은 암컷의 산란관이 길어지면서 말조개 또는 재첩의 출수공에 산란하며 수컷이 뒤이어 수정을 한다.

산란시기 수컷은 조개의 주변으로 세력권을 형성하게 되면 입 주변에는 추성이 형성되고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검게 변한다. 주변에 다른 수컷이 오면 공격행동을 보이며 조개의 출수공을 입으로 쫓는 행동을 한다. 자연산란 방법은 조개에 산란하는 행동이 관찰 되었을 때 산란이 끝난 후 조개를 별도의 수조에서 사육관리 하면 조개로부터 치어가 방출될 때까지 관리해주어야 한다.

인공수정 방법은 산란행동이 관찰 될 때 암컷과 수컷을 수조에서 건져내 복부압박을 이용한 암컷의 알과 수컷의 정자를 채취해 수정한다.

참중고기의 수정란은 타원형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부화기를 이용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참중고기 수정란